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3월호

2022 March
Vol. 600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발길 머무는 골목길
CEO의 단골 맛집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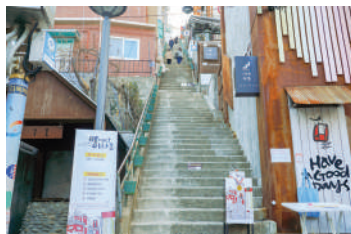
발행일 2022년 3월 2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04

발길 머무는 골목길
부산을 거닐다 '초랑이바구길'



08

영화 돋보기
위기의 시대, 굴복하지 않는 용기
<다키스트 아워>와 <돈 룩 업>



12

CEO의 단골 맛집
장인정신이 살아 숨쉬는 '三千浦 횃집'



14

고객의 인문학
해석해야 성공한다 <너의 의미> 읽기

ZOOM in BC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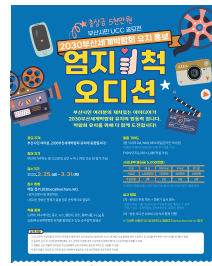
16

Story of 캡틴 장



18

Together with 203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부산시민 UCC 공모전 '엄지척 오디션' 개최



20

기업포커스
은산해운항공(주)



24

Look at Me
스타트업 '주브이드림'



트렌드 TALK

28

Do You Know MZ?

30

2000년대 레트로 감성의 부활

경제 KEYWORD

32

물가 상승의 기억 소환과 새로운 도전

34

BCCI 인포
부산상공회의소가 드리는
최신 경영·경제 정보

36

3월 대선 여·야 부산지역 주요공약

38

ESG 리포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가이드라인 공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 수립

40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2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46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 안내





부산을 거닐다 2편

※ 거닐다(걷다+읽다)

168계단으로 향하는 초량이바구길

글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부산은 산(山)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 '부산(釜山)'에는 바다(海)는 없고 '산(山)'만 있다. 산이 많은 지형적 특징은 근현대 역사 속에서 어느 도시보다 산동네를 많이 품게 하였다. 부산 사람들은 오로지 살기 위해 희망을 이루기 위해 일터와 가까운 산 위에 삶터를 만들었고 쉬지 않고 흐르는 혈액처럼 혈관과도 같은 골목과 계단을 매일같이 내달렸다. 이러한 삶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부산의 원도심이자 산복도로다. 초량이바구길은 그런 곳이다. 초량동 산복도로는 부산(山)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와 삶과 문화를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다.



1_ 초량 산복도로에 들어서있는 집들
2_ 텍사스 거리 입구

부산 최초의 종합병원 백제병원

부산역 광장에서 초량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넌다. 'TEXAS STREET' 간판 아래를 지나 골목 안으로 들어선다. 퀸모텔을 지나 명승주차장 대각선 뒤편으로 낡은 붉은벽돌건물이 서 있다. 세월의 야속함 속에 낡고 힘없어 보이는 저 건물이 그 옛날 대단했던 옛 백제병원이다. 백제병원은 일본 오카야마의전(岡山醫專)을 나온 의사 최용해가 1927년 신축했다. 일본인, 독일인 의사를 초빙하고 40개의 병상이 구비된 당시 최신식 병원이었다. 부산부립병원, 부산철도병원과 더불어 부산 3대 병원 중 하나였고 민간자본으로 건립된 부산 최초의 종합병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높은 인건비는 최용해의 목을 죄었고 행려병자의 시신을 인체 표본으로 만든 사건으로 운영난이 가중되자 결국 문을 닫았다. 이후 중국인 양모민이 인수하여 봉래각이라는 고급 요릿집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의 등쌀에 문을 닫게 되고 아까즈키부대 장교 숙소, 해방 후 치안대사무소, 625전쟁 시 임시 중국대사관, 휴전 후 예식장, 탁구장 등등 계속해서 내·외부는 변화를 거듭했지만, 이 자리에서 100여년을 버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지금은 지하 전통주점,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창작과 비평출판사의 지역 독자 거점인 창비 부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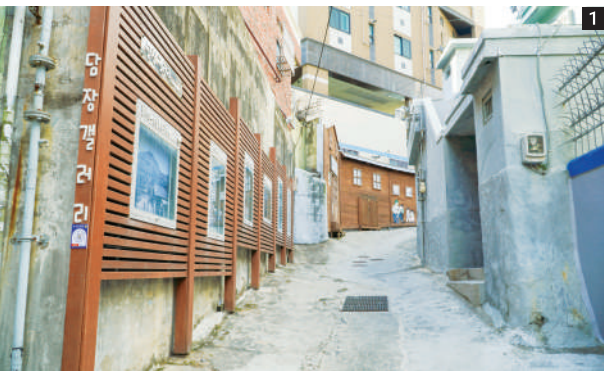


3_ 구 백제병원 건물
4_ 백제병원 설명
5_ 남선창고 터
6_ 남선창고 붉은 벽돌 담



근대 역사를 품은 길을 따라 걷다

백제병원 옆을 돌면 탑마트가 있다. 탑마트의 경계에 놓인, 주차장을 감싸고 있는 붉은벽돌 담장으로 시선이 쏠린다. 탑마트가 있는 이곳은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치국이라는 초량객주에 의해 1900년 세워진 부산 최초의 근대식 창고인 '남선창고' 자리이다. 남선창고는 함경도에서 잡힌 명태를 많이 보관했다고 해서 명태고방이라도 불렀고 '초량 사람치고 명태고방에서 명태 눈알 안 빼먹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 하지만 세월과 개인의 사정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부산지역 근대창고업이 시작된 역사적인 남선창고가 철거되고 사라진 일은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붉은 벽돌담의 일부라도 남아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붉은 벽으로 다가가 손길을 내민다. 벽돌담 사이사이로 나무 뼈대들이 세월을 견디고 있다. 이곳의 나무 기둥들은 갑오개혁 때 수영성 영청을 해체하면서 나온 목재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하니 수영성의 역사가 함께 깃든 이 자리가 더욱 의미있게 느껴 진다.



1



2

백제병원 자리로 돌아와 초량2동 주민센터 쪽으로 오르막을 올라 큰길에서 늘푸른포스트빌 옆 작은 골목으로 들어선다. 곳곳에는 초량의 옛 사진과 벽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1890년경의 백사청송의 초량해안 사진에서 눈길이 잠시 머문다. 백제병원 아래에서부터 8차선 도로, 부산역이 있는 곳 모두가 바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단의 맞은편 초량초등학교와 초량교회의 사잇길에 서니 논쟁의 여부는 있지만 초량교회 담장에 'SINCE 1893년',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라 쓰여있다. 초량교회의 역사와 안창호 선생, 이승만 대통령과의 인연이 전시되어 있고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도 보인다. 초량초등학교 담장은 이바구담장갤러리다. 초량이바구길 안내 지도를 시작으로 담장을 따라 사진들이 걸려 있다. 산복도로와 삶의 풍경, 동구 출신 명사들의 사진과 스토리, 초량초등학교 출신의 연예인 이경규·나훈아·박칼린의 사진과 생가 안내판, 초량의 변천과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를 통한 지역의 미래까지. 사진 한장 한장이 역사의 작은 편린으로 다가온다. 모두를 더하고 살피니 부산의 역사가 보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산복도로의 삶이 녹아있는 168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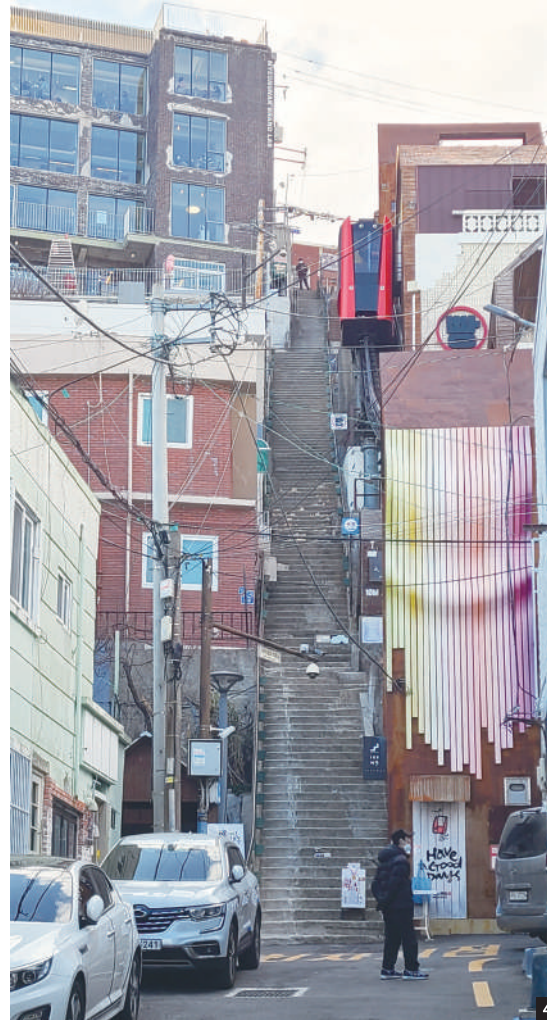
이바구 담장 끝 정겨움이 가득한 문방구를 지나 작은 계단을 오른다. 계단 위로 걸어가자 오른쪽으로 펼쳐진 골목길 멀리, 무언가가 보인다. 그 유명한 168계단이다.

168계단은 초량이바구길의 핵심이자 초량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된 지 오래다. 아찔한 경사위로 168개의 계단이 놓여있고 그 옆으로는 더 아찔한 빨간색 모노레일이 뒤통거리며 안간힘으로 하늘을 오르고 있다. 계단 옆으로 우물이 보인다. 예전 초량동 산복도로 어머니들은 모노레일조차 힘든 이 계단을 물동이를 이고 힘겹게 오르셨다. 아버지들은 온종일 바다를 바라보다 수평선 넘어 뱃머리가 보이면 지계를 메고 손살같이 계단을 달려 부두로 향했다. 하루를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하루를 굶어야 했던 시절. 이 계단을 먼저 내려가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했고 실제 사망사고도 있었다고 했다.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왼쪽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는 지계를 메고 어머니는 물동이를 이고 아이를 업은 채 계단을 오르는 철제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계단을 오르다 만난 짬지공원에 '철근으로 만든 아버지'가 왜 지계를 옆에 두고 쉬고 계시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모노레일 속 나와 눈이 마주친 커플은 그 시절 어른들의 삶의 무게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이곳에 모노레일이 왜 놓였는지 한 번쯤 생각은 해 보았을까?



3

- 1_ 이바구길 담장갤러리
- 2_ 이바구 담장 갤러리 나훈아, 이경규, 박칼린
- 3_ 초량교회



4

명란로드로 리브랜딩 되는 초량이바구길

얼마 전 오픈한 '명란 브랜드연구소'가 보인다. 도요, 레오, 미요라는 명란 삼 남매 캐릭터가 귀엽다. 갑자기 웬 명란 이지? 해답은 놀라웠다. 전 세계 명란의 90%를 소비하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한 '후쿠야'라는 명란 가게의 성장은 곧 일본 명란의 성장과 부흥이었는데 그 시작이 초량전통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초량이바구길이 점차 명란 로드로 리브랜딩 되는 중이란단. 루프탑에 오르니 산복도로를 등지고 부산항을 품은 풍경이 압권이다. 다만 힘들고 모진 산복도로 삶을 위로 주었던 모두의 바다가 들어선 높은 건물 때문에 누군가의 바다로 가려지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났다. 쉽다 잠시 골목 탐험에 나선다. 막걸리 가게, 일본식 덮밥 가게, 파스타 가게 등 개성 있는 상점들이 있으며, 이바구길의 명물인 명란 요리 체험장 '명란 셀프쿠킹클래스'도 보인다. 명란 셀프쿠킹클래스는 가족이 함께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부산(山)으로 향하는 길, 초량이바구길을 거닐으며 만난



5



6

- 4_ 168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노레일
- 5_ 168계단 중간에 위치한 '철근으로 만든 아버지'
- 6_ 168계단을 오르내리는 삶을 그린 작품

이야기들은 작게는 초량의 이야기겠지만 넓게는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며 역적스러움으로 정착해 온 부산 사람들의 삶의 역사이자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과 희망이라는 두 끈을 놓지 않고 희생적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의 삶을 잘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물동이가, 아버지의 등에는 지계가, 누나의 허리에는 동생들이 얹혀 있었던 순간을 이제는 기억하지 못한다. 돌아오는 주말 초량 이바구 길을 한번 걸어보자. 오래되고 낡은 작은 골목에서 정겨운 어머니를, 보고 싶은 아버지를, 눈물 많고 코흘리개였던 작은 나를 만날지도 모르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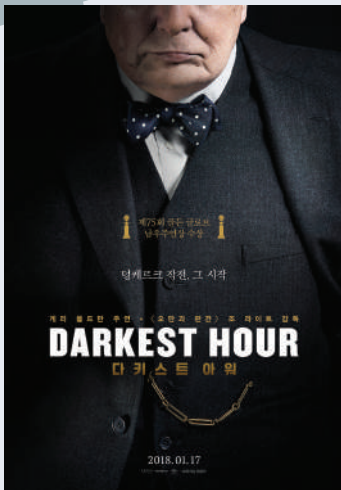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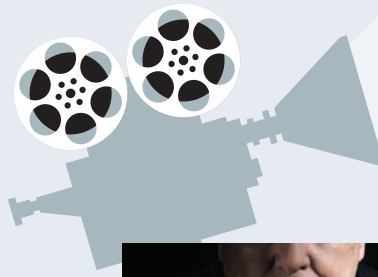


명란브랜드연구소

CEO가 볼만한 명작영화 추천

위기의 시대, 굴복하지 않는 용기
**<다키스트 아워>와
 <돈 룩 업>**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시트·영화평론가



개봉 2018. 01. 17.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전쟁
 국가 영국
 러닝타임 125분

다키스트 아워 Darkest Hour

암울한 시대, 리더의 자리

제목 그대로 현대사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다. 조 라이트 감독의 <다키스트 아워> (Darkest Hour, 2017)는 히틀러의 나치군이 엄청난 속도로 유럽을 장악해가던 1940년 5월 영국의 이야기다. 정확하게는 떠밀리듯 총리 자리에 앉게 된 윈스턴 처칠의 선택을 그린 영화다. 프랑스가 나치 탱크부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였고,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이 대(對)독일 유화정책을 써왔기에 영국은 무방비로 나치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칠은 자신이 속한 여당의 정책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급하게 구성된 전시 연립내각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의 정적들로 가득했다. 게다가 그는 과거 몇 차례 정책 실패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매 끼니 술을 마시는 주정뱅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한 나르시시스트, 말만 잘하는 연설가 등 그를 미심쩍어하는 수많은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처칠에게는 그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유럽의 운명은 영국의 행동에 달려있었고,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영국인들 나아가 전 세계가 그의 입에 주목한다.

지금, 다시

윈스턴 처칠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다키스트 아워>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처칠의 명연설들은 정치나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을 정도로 익숙하다. 때문에 <다키스트 아워>를 보는 관객은 일차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오늘날, 다시 처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역사 영화를 볼 때 우리의 사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잘 알려진 역사를 사실 그대로 다루는 영화의 성패는 그것이 오늘의 상황과 시대 정신에 어떤 말을 걸어오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영화로 예를 들자면 2014년 <명량> 흥행도 이런 관점에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2017.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 Co., Ltd. 제공



어둠과 침묵

우선 <다키스트 아워>는 당시의 상황과 곤란에 빠진 인물의 심리를 영화적으로 잘 표현해낸다. 감독은 나치군의 직접적인 전투 장면 보다 쇼트의 구성으로 혼란한 상황을 연출한다. 가령 한 화면 안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빛과 어둠, 버즈아이 뷰(bird's eye view) 앵글이나 극도의 하이 앵글에 포착된 사람들은 전쟁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 특히 처칠은 영화 속에서 종종 작은 공간에 갇힌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전화 부스 등에 갇힌 그는 선택의 곤경에 빠진 인물로 표현되어, 엄청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미를 형성하며 관객의 동일시에 성공한다. 사운드의 사용도 흥미롭다. 영국 의회의 소란스러움은 전쟁기의 혼란을 보여주고, 반대로 생방송 라디오 연설에서 처칠의 몇 초간의 침묵 또한 오히려 순간의 정적으로 긴박한 전쟁 상황과 전략이 선택되고 실행되는 순간의 중요성을 표현해낸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는 그늘에 가려진 채 침묵하는 인물들을 비중 있게 다룬다. 처칠의 말을 기록하는 타이피스트, 처칠의 연설을 의회 말석에서 듣고 있는 이름 없는 의원에게 자꾸만 카메라가 멈춘다.

이름 없는 소시민의 굴복하지 않는 용기

한편 덩케르크 해안에 영국군 40만 명이 고립되고 동맹국인 미국이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여당 내 정적들은



독일과의 평화회담만이 영국이 살길이라며 처칠을 압박한다. 이제 처칠은 항전과 협상이라는 중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협상을 요구하는 이들은 처칠의 끝까지 싸우는 말이 파멸을 향하는 낭만적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지고 있는 전쟁에서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다.

<다키스트 아워>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달리 말하자면 그늘에 가려진 이름 없는 소시민을 소환한다. 처칠은 타이피스트가 던지는 질문, 말단 의원의 경청, 그리고 지하철에 올라탄 시민들의 얼굴을 마주한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다시금 항전을 외친다. 이 영화는 처칠이 외친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단순히 리더만의 선택이 아니라, 이름 없는 소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시 이름 없는 소시민을 향한 침묵 속 울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돈 룩 업 Don't Look Up

인류 멸종의 위기? 그러나 기다려!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잠시 미루자고 말하는 리더가 있다. 2022년 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 후보에 오른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 업> (Don't Look Up, 2021)은 혜성 충돌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천문학자 랜들 민디 박사와 디비아스키 연구원은 우연히 지구로 향하는 거대 혜성을 발견하는데, 약 10km 크기의 혜성이 6개월 후 지구와 충돌해 인류가 멸종될 것이라는 데이터를 도출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급히 워싱턴에 이를 알리고 대통령과 만난다. 그러나 대통령은 3주 후에 열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단 “기다리며 상황을 보자”라고 반응한다. 지구 종말을 6개월 남겨두고 미국 대통령이 행동의 유보를 결정한 것이다.

기밀 곳은 없다.

물론 현대사회는 대통령 1인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언론과 종교, 정·재계 인사를 포함한 사회지도층과 여러 시스템이 작동한다. 대통령의 기다리라는 대답을 들은 민디 박사는 언론에 이 소식을 알린다. 그러나 그들이 출연한 시청률 높은 TV쇼 프로그램은 이 심각한 뉴스마저 가벼운 가십으로 소비한다. 한편 선거에 불리해진 대통령은 그제야 혜성 충돌 소식을 발표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혜성의 궤도 수정을 위한 핵 로켓 발사를 지시한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으나 순조롭던 로켓 발사마저 갑자기 중단된다.

로켓 발사 중단의 이유가 놀랍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인 대기업 회장 이서웰이 혜성의 지구 밖 파괴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혜성이 고가의 특수광물로



개봉 2021. 12. 08.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코미디
 국가 미국
 러닝타임 139분



이루어졌기에, 혜성을 쪼개서 지구에 떨어뜨리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구 어딘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는 오히려 기업이 얻는 막대한 부만이 가난, 사회적 불공정, 생물 위기 등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오히려 인류의 진화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Look Up.”

<돈 룩 업>은 현대사회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녹아 있는 영화다. 혜성 충돌로 인한 인류 멸종은 오늘날 지구 환경 문제로 치환해 생각할 수 있다. 또 무능한 정부,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진 언론, 자본 만능주의 기업가, 개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첨단기술,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불신과 회의 등 영화의 많은 설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한 민디 박사는 암담한 귀향 길에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는 긴 꼬리가 달린 커다란 반딧불, 지구로 향하는 혜성을 눈으로 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친다. “Look up!” 그의 말 한마디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혜성 충돌이라는 엄청난 위기에 올바르게 직면하지는 전 지구적 캠페인으로 확대된다. 물론 민디 박사의 한마디 외침으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소시민의 성찰과 행동을 요구하는 민디 박사의 “Look up!”은 <다키스트 아워>의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닮았다. 🌌



장인정신이 살아 숨쉬는 ‘三千浦 횡집’

“낚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다” 금정구 남산동 끝자락 범어사 입구 초입에 위치한 삼천포 횡집을 들어서면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이 한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장님은 생선회에 있어서 장인(匠人)이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92

‘삼천포’라는 상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횡집

삼천포 횡집은 1983년 9월 부곡3동의 작은 가건물에서 개업하여 부산에서 삼천포라는 상호로 가장 먼저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삼천포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처음으로 생선 횡감을 사러 간 곳이 삼천포였고,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삼천포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에도 들어갔던 이시가리 회의 원조

삼천포 횡집은 지금은 고가이지만 예전에는 비교적 값이 저렴했던 이시가리(돌도다리)를 회로 개발하여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종종 포장 배달로 대량의 이시가리 회를 배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시가리를 배달하고 나면 배달한 접시가 돌아오지 않아 접시를 찾기 위해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해보니 그곳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주방이었다고 한다. 삼천포 횡집의 이시가리 회의 맛이 청와대까지 알려져 청와대에서 공수해간 것이다. 그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삼천포 횡집의 이시가리를 꾸준히 공수해 갔다고 한다.



매일 직접 낚시하시는 사장님

삼천포 횡집의 회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삼천포 횡집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사장님께서 매일같이 직접 낚시를 해서 잡아 온 생선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장님이 산지에 가서 생선을 잡아 온 것은 1987년부터였는데, 이때 부터 손이 많이 가는 작은 생선이라 구이로만 사용했던 볼락과 열기를 짭게 썰어서 회로 제공해오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도 전날까지 예약을 받은 손님을 파악하여,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서 갈치, 볼락, 열기, 홍감팽이 등을 낚시로 잡아서 손님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니 신선함과 맛이 남다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싱싱한 생선회 외에도 매일 아침 잡은 갈치로 제공하는 생갈치조림과 생갈치구이도 삼천포 횡집의 별미다.

기업인들 사이에 아는 사람은 안다는 맛집

삼천포 횡집은 40년의 오랜 역사 만큼이나 주요 고객층이 단골손님이다. 특히 지역의 주요 기업인들이 주변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 이후, 사업 미팅차, 각종 모임을 위해 가게를 방문한다고 하며, 한번 방문하기 시작하면 기본 20-30년은 찾아주고 있다고 하였다.



삼천포 이인철(왼쪽), 이인숙(오른쪽) 사장님 부부



삼천포 회 상차림

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가게

삼천포 횡집을 찾는 손님 중에 단골이 아닌 손님은 없다고 한다. 많은 단골손님이 생기게 된 데에는 사장님 부부만의 운영철학이 존재한다. 먼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 단 한 분의 손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대접하여 손님이 만족하면 그걸로 된 것이라며,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루에도 예약을 몇 팀 받으면 그 이후로는 손님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가게를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끼리 가급적이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오고 있다고 한다. 더욱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손님이 도착하고 난 뒤부터 조리를 시작하여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4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 부부는 “가게에서 제공하는 회와 음식을 맛보고 손님들이 만족해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결같이 싱싱하고 맛있는 회를 제공해 갈 것”이라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



삼천포 갈치조림

해석해야 성공한다 <너의 의미> 읽기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우리 주위에는 여유도 있으면서 성과도 좋은 사람이 종종 있다. 그들의 시선은 늘 ‘메타적(meta-)’이다. 일반적인 시선보다 한층 더 높게 있다. 그들은 관찰하고 통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포착한다. 그들은 단연 예리한 기호학자인 것이다. 우리도 예민한 기호학자였던 때가 있었다. 사랑할 때였다. 연인의 사소한 행동과 말에 함축된 의미를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해석했었다. 그 말과 행동의 중의적이고 역설적인 의미까지 파악해냈었다. 해석하면 인생이 길어진다. 지금처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면서 해석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일 년이 지나도, 삼 년이 지나도, 남는 기억이 별로 없다. 기억이 없다면 시간이 사라진 것과 같다. 무릇, 해석해야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연애 시절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산울림 김창완의 <너의 의미>는 ‘연인의 기호학’으로 재 매김 될 수 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 연인의 말은 그렇다 쳐도, 웃음도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만약, 연인이 웃지 않았다면 그건 더 큰 의미로 나에게 상처가 된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눈빛조차도 나에게 ‘약속’이 되고, 연인의 뒷모습은 어쩐지 늘 쓸쓸하고, 그 또한 나의 다짐을 끌어낸다. 마침내 연인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된다. 나는 그

사람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다. 직업 세계에 진입하면 업무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관심 둘 여유가 없다. 당연히 그것을 ‘읽을’ 시간도 없다. 일상은 온전히 ‘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읽는 능력’의 퇴화는 업무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다, 잘 읽어야 잘 진단하고 방향 설정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무작정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지시한 사람의 의중·목표·성향을 해석하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도 독해해야 한다. 이것이 일상의 기호학이다. 기호학이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사람의 말·표정·몸짓·패션, 사소한 습관까지 해석의 대상이 된다.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 수가 없다. 정답이 있더라도,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도무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해석은 늘 유예된다. 해석의 욕망은 더 증폭되고, 그 증폭된 것만큼 나는 그(녀)를 더 사랑한다고 느낀다.

연인의 복잡성은 연인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아무리 복잡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단순한 사람일 뿐이다. (그 복잡했던 연인이 결혼 후 몇 년 지나 너무나 단순한 개체가 된 경우를 떠올려보라. 그 사람이 단순해졌다고 보다는, 내 사랑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연인을 열심히 해독하던 기호학자는 드디어 토테미스트(totemist)가 된다. 만물에 영혼이 깃든 듯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핀다. “향긋한 바람”은 그 자체로 바로 ‘너’이다. 코스모스는 슬픔의 정령이 되고, 나에게 불어온 바람은 ‘너’의 메시지, ‘너’ 자체가 되는 것이다. 만물이 ‘너’와 관계를 맺는다. 만물이 너와 나의 사랑이거나, 나의 슬픔이 되는 경지에 이른다.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르셀에게 알베르틴도 기호를 난사하는 해독하기 어려운 텍스트였다. 그 텍스트가 어느 날 사라졌다. 알베르틴이 낙마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 그렇다면 알베르틴은 더 이상 기호 발사체가 아닐까.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기억이 담아둔 이 순간은 여전히 계속되고 살아 있어서 (...) 죽은 여자를 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그녀의 수를 늘린다. 내가 잊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알베르틴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알베르틴이다.”

그동안 마르셀이 얼마나 알베르틴을 열심히 해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그녀는 죽은 이후에도 계속 되살아난다. 마르셀에게 수많은 알베르틴이 있다. 알베르틴을 애도하려면 그 수많은 알베르틴과 일일이 다 작별해야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잊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르셀이 부럽지 않은가. 그토록 잊지 못할 사람을 가졌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너의 의미>의 가객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뭉게구름 위에 지은 성이 튼튼할 리 없고, 그 성에 낸 창이 견고할 리 없다. 그 성과 창은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 흠날리고 파헤쳐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성과 창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 있음’을 느낀다. 결국 연인의 의미를 해독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생’에 있는 것이다.

해석해야 성공한다. 일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사랑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더 단순하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반드시 성공도 아니며, 상처를 받는 것이 또한 반드시 실패라고 할 수도 없다. 사랑의 성공 여부는 정말 단순하게도 ‘사랑’ 그 자체에 있다. 그 사랑이 진짜였다면,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진짜였다면, 결과를 떠나 그것은 성공한 사랑이다. 그 성공한 사랑에는 물론 수많은 ‘너의 의미’가 들어 있다. 🎧

Story of 캡틴 장

#01

What a busy day! 2022. 2. 9.(수)



13: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UCC 공모전
엄지척 오디션 광고 촬영현장

후배 기업인 여러분!
모르는거 있으면 마음껏
 물어보이소



15:00 부산차세대기업인클럽 회장단 일행 예방



15:30 하형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예방



16:00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부산지역협의회 일행 예방

#02

부산경제 살아나겠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예방(2022. 1. 21.)



김정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 예방(2022. 1. 26)



부산상공회의소 2월 회장단 간담회 (2022. 2. 8)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부산시민 UCC 공모전 엄지 척 👍 오디션 개최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최대 현안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부산시민 UCC 공모전 「엄지 척 오디션」을 개최한다.

지역 주요 기관이 함께 하는 공모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엄지 척 오디션은 부산상공회의소가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추진위원회와 지역 방송사 KNN, 지역대표 은행인 부산은행과 함께 힘을 모아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부산 시민의 불협 열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오디션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 및 중고교생, 대학생이 참여 가능한 만큼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의 아이디어를 부산 시민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어줄 것이다.

“ 엄지척 오디션은 부산시민 여러분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품은 UCC를 기다립니다. ”



출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 유튜브 채널

공모 요강

- 공모주제** 부산시민 여러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동참합시다!
- 접수기간** 2022. 2. 25.(금) ~ 3. 31.(목)
- 응모자격** 부산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 및 일반시민(※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
- 주 최** 부산상공회의소,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KNN
- 후 원** BNK부산은행
- 접수처** 2030ucc@korcham.net



왜 UCC공모전인가?

- ☑️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Youtube와 같은 동영상 매체의 소비율 향상
- ☑️ 1차 UCC 공모전 예선 심사 후, 2차 결선은 방송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부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오디션으로 진행

제출물

- 참가신청서 및 영상파일
- ☑️ 영상파일: 3분 이내 광고, 챌린지, 댄스, 플래시몹, V-log 등
- ☑️ 파일형식: AVI, WMV, MP4, 등 (FHD 사이즈 1920*1080 픽셀 이상)

심사방법

- ☑️ 1차(예심): 온라인투표 70% + 전문가 심사 30%
- ☑️ 2차(결선): 방송 오디션 100% → 시상식 동시 진행



총 상금 5,000만원
수상자 14명

대 상 1,000만원 수상자 1명

최우수 700만원 수상자 2명

우수상 400만원 수상자 5명

인기상 100만원 수상자 6명

※ 대상 ~ 우수상 8명 방송 오디션 참가



긍정의 힘으로 국내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은산해운항공(주)

부산 사람이라면 중앙동 일대를 지나면서,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라는 문장을 한 번 이상은 접해봤을 것이다. 이 문장은 은산해운항공의 슬로건이다. 회사의 슬로건처럼 은산해운항공은 1993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동남권 1위의 종합물류 기업으로 도약한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다.



1_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경인지점
2_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



성장을 거듭하는 국제물류운송의 선두 기업

은산해운항공은 국제물류주산업이 주업인 은산해운항공(주)를 중심으로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를 보관, 상하차하는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수출입 제품 포장을 위한 은산수출포장(주), 컨테이너 내륙 운송을 위한 은산로직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2020년부터는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은산바이오(주)를 설립하여 프로바이오틱 “은산이피미바이오 프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2021년 세계 14대 명수로 알려진 “헬시언” 생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경야독의 의지로 창업의 길에 서다.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회장은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서해운에서 18년 넘게 근무한 이후 은산해운항공을 창업하였다. 양재생 회장은 가난한 농부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14살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소년 가장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한다. 집안 형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서해운에서 18년 근무하면서 맡은 일에서는 최고가 되자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했으며, 밤에는 동아대를 야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수료하였다고 한다. 평소 항상 도전정신으로 가득 차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온 양재생 회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1993년 11월 지금의 은산해운항공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객과의 신용이 지금의 은산해운항공이 있게 된 비결

은산해운항공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원재료 등을 선박이나 항공, 육로를 이용해 운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양재생 회장은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고객과의 신용과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과거 IMF, 리먼 금융위기, 한진사태 때에도 은산해운항공은 고객의 소중한 화물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운송해왔다. 은산해운항공은 부산을 기반으로 한 향토기업이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물류 기업으로는 국내 1위라고 한다. 현재와 같이 전 세계 국가에 파트너를 보유하고 미국, 중국, 베트남 주요 물류거점에 직접 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비결은 고객과의 신뢰, 신용, 약속을 지키는데 있다고 한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사업 다각화에 나서다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재생 회장은 늘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 생각해온 만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평소에 고민해



1_ 은산빌딩
2_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화전지점
3_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신항만 동동지점



직원미팅을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아울러 게르마늄 생수 “헬시언”은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등 해외에도 생수를 수출해 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어려운 시기에도 성장을 이어간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IMF 사태, 리먼브라더스발 국제금융 위기, 한진 사태도 겪었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이슈처럼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경영학의 오랜 명언처럼 은산그룹은 이런 시기일수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갔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적인 물류 애로가 발생했는데, 이 시기야말로 국제복합물류업체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무역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해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화주들이 은산의 물류 운송에 더욱 만족하게 만들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부산을 미래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양재생 회장은 부산은 세계 8위 무역항으로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을 제외하면 5천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8위 라는 것은 세계 1위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특히 부산항을 거치는 60%의 화물이 다시 3국으로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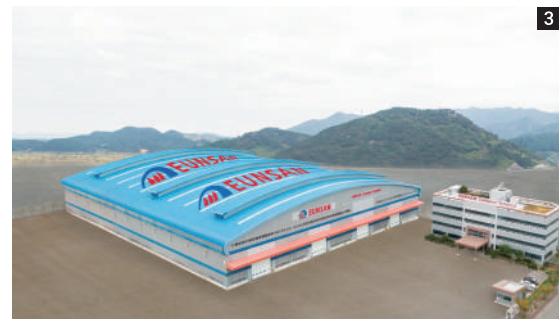
되는 환적 화물인 만큼 앞으로 물류는 대량의 컨테이너가 물류기지로 모이고 이 화물들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Sea & Air의 복합물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부산항과 24시간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이 만난다면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부산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업으로

향후 은산해운항공은 국제수출입화물 중개, 컨테이너 터미널, 수출포장, 내륙 운송 사업을 더욱 고도화 발전 시키고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물류 외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양재생 회장은 기업의 비전이 부가 가치 창출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큰 목적으로 두었다면 은산그룹은 이미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앞으로 은산해운항공을 인공 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고용을 줄이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회사, 사람 냄새가 나는 회사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은산해운항공의 비전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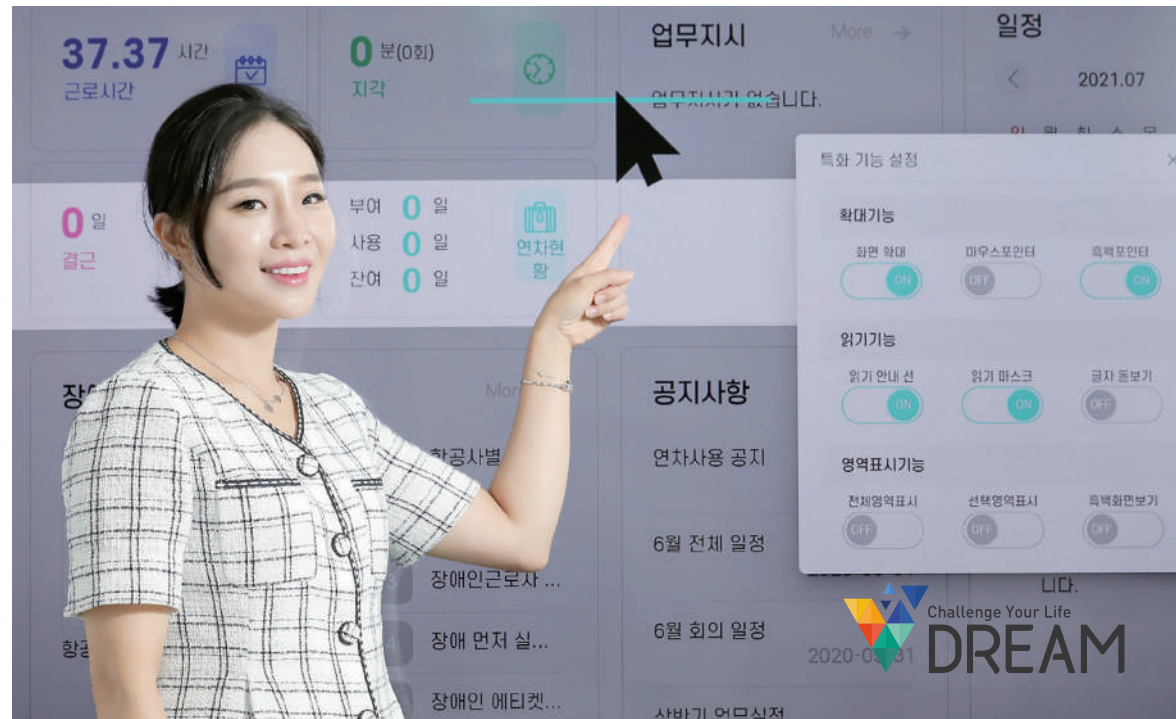
2



3

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유산균을 접하게 되었는데 속이 편안해지며, 목은 변이 빠지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돼 “은산이피미바이오”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유통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은산바이오(주)를 설립하였다. 은산 바이오(주)는 건강과 미용, 삶의 질을 개선하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의 유통하고 현재 “은산이피미바이오”란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은산해운항공은 지난해 9월에는 “세계 14대 명수”로 알려진 “헬시언” 생수를 생산하는 금천게르마늄(주)을 인수해 생수 시장에도 뛰어 들었다. 양재생 회장은 지난 10년간 직접 이 물을 마셔오며 장점을 알게 되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회사의 전 직원에게도 가족 모두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헬시언’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직원들 건강을 위해 4인 가족이 매일 먹을 물을 집으로 무료 배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StartUP 지역의 유명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최고의 디지털 장애인 HR 솔루션 스타트업 (주)브이드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가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2018년 창업을 시작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있는 (주)브이드림이다.



확장 이전한 (주)브이드림 사무실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주)브이드림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장애인 고용이 보인다

(주)브이드림은 장애인과 기업을 연결해서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한 장애인 인재를 소개해 주는 장애인 HR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플랫폼 '플립(Flipped)'을 통해 실시간 전담팀을 통한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사업의 시작은 IT기업의 대외사업 이사로 일하던 김민지 대표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호소하는 기업을 많이 접하면서부터다. 김 대표는 장애인 전문 재택근무 시스템을 만들어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2018년 브이드림을 설립했다. 창업 후 1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플립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고, 4월에 정식 론칭했다.



1_브이드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2_동명대와 MOU 체결

3_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브이드림과 '함께드림' 행사



그 후 플립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김기사랩으로부터 자금 투자를 유치했고 민간투자유도형 사업(TIPS)으로 선정되었다. 투자 유치 이후 브이드림은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진입했는데, 서울 서초 지사를 설립하고 전국 장애인 복지관, 협단체 등과 협약을 맺으며 전국 장애인 근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

코로나19에서 찾은 장애인의 사회 진출 기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에 따라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은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미이행할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의무대상 기업들의 78% 이상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업무 비효율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출입문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성도 커 기업에서 특별히 케어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일들이 생긴다. 무엇보다 막상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플랫폼 '플립'

김 대표는 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먼저 출퇴근이나 근무환경 등의 문제는 재택근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기업이 증가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택근무는 본인 책임으로 사고 원인의 90%를 소명해야 하므로 기업의 관리 책임이 다소 줄어들다. 이처럼 재택근무가 보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이들은 다름 아닌 장애인들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출퇴근이 힘들어 취업을 망설였던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오히려 사회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플랫폼 '플립'

브이드림은 사무보조, 마케팅, 디자인, 모니터링, CS, 자료수집, 카드, 예술단 등 15가지 장애 유형별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에 추천한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테스크 관리, 인사관리, 멘탈관리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관리는 자사가 자체 개발·운영 중인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플랫폼 '플립(Flipped)'을 통해 이뤄진다. 플립은 '확 뒤집다'라는 뜻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확 뒤집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취업 지원 및 뛰어난 후속 관리에 강점을 가진 브이드림은 기업의 만족도를 이끌어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관 외에도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업,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100인 이상 기업을 고객사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브이드림은 2020년 서울창업허브 우수기업으로 뽑혔으며, 2021년에는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과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부산경제포럼 이달의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브이드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수여 등 기관 및 지자체의 인증을 통해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민지 대표 있게 해준 건 '절박함'과 '몰입'

김 대표 역시 언제나 탄탄대로를 걷은 것은 아니었다. 창업 초기에는 시스템 개발부터 장애인·기업·관련 기관을 설득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결국 초기에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김 대표는 7개월 동안 월급

한 폰 받을 수 없었다.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 가족과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기도 했다. 적자만큼이나 힘든 것이 30대 여성인 김 대표를 뼈뺌하게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김 대표는 그때마다 더 열심히 뛰어나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김 대표는 오히려 스스로가 여성 대표임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에게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비결로 '몰입'을 꼽았다. 세상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아, 그냥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며, 그만큼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몰입해야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1_ 우수장애인 재택근로자 시상식
2_ 발달장애 예술인 굿즈제작
3_ 청각장애인 지원자 비대면 면접



장애인 삶의 질 향상으로 선진 복지 실현

최근 사회 전체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브이드림의 맞춤형 인재 매칭에 따른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고객사의 ESG 경영 실천을 격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기업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넘어, 우수한 장애인 인재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브이드림의 전문적인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바탕으로 실버산업 및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장애인들이 진정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플립'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테리어, 보조공학기기를 포함한 장애인의 생활 전체를 돌보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올해에는 AI 기반 맞춤형 직무 매칭 프로그램, 장애인 특화 메타버스 구현 등 IT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장애인 산업을 계획해, 재택근무 비즈니스를 넘어 장애인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예정이다.



브이드림 서포터즈 1기 창단식

Do you Know
MZ?

MZ세대가 퇴사하는 이유

최근 언론매체와 인터넷, 유튜브 등을 보면 MZ세대들이 다니던 직장을 빠르게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파이어족을 꿈꾼다는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성세대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다가온다. 과거에는 한 번 취업하면 은퇴할 때까지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MZ세대들은 빠르게 퇴사하거나 이직하고, 파이어족(조기은퇴)을 목표로 삼을까?

본인 맞춤형 직장으로 이직


MZ세대가 이직·퇴사를 타 연령대보다 쉽게 하는 데는 이들의 성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MZ세대는 일보다 본인의 삶을 중시하여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소속감이 낮은 편이며, 주변 환경이나 세상을 자신에게 맞게끔 하는데 익숙한 성향을 띤다고 한다. 그래서 워라밸, 급여 등이 본인과 더 잘 맞는 조건의 회사를 찾아 움직이며, 일부는

취업과 동시에 퇴직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표현하는 ‘퇴준생’(퇴사+취업준비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전에는 퇴사라는 자체가 무거운 주제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예전만큼 무거운 주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라는 ‘가영이 퇴사짤’ 사진이 유행으로 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파이어족

이직 외에도 파이어족을 꿈꾸는 MZ세대도 많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조기 은퇴(Retire Early)’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경제적 자립을 통해 30대에서 늦어도 40대 초반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조기 은퇴를 통해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나 승진에 대한 압박감 등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즐기겠다는 것이다. 파이어족의 삶은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은퇴한 사람,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십억을 벌고 은퇴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MZ세대들이 파이어족을 꿈꾸게 된 데에는 최근 1~2년간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하루 아침에 벌어들인 젊은 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MZ 세대의 삶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향해야 할 MZ세대층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짚어보고, MZ세대들이 기업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의 이직과 조기은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면밀히 분석해 보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MZ세대 신조어 얼마나 알고 있나요?

Q1. ‘궁금한 것을 찾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 ① 핑프 ② 궁금맨 ③ 검색충 ④ 궁금다사

Q2. 다음 중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오늘 뭐 먹지? 점메추!
- ② 야 주블~ 택배 보내야해.
- ③ 운동 했더니 근육통이 갑통알.
- ④ 난 한정판만 노리는 득템력 최고의 사람이.

Q3. 다음을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① 종갓구알	A. 웃긴데 안 웃겨
② 머선129	B. 인터넷 반려동물문화를 즐기는 사람
③ 웃안웃	C.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④ 랜선집사	D. 무슨 일이나

Q4.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오늘은 오마카세 말고 ㉠한테 다 말기는 ㉠카세 먹자!

- ① 아빠 ② 엄마 ③ 삼촌 ④ 이모

Q5. MZ세대 대화 내용이다. 다음 중 올바른 대답은?

A. 집에 오는 길에 강아지를 봤어.
B. 정말? 귀여웠겠다.
A. 응 엄청 귀엽더라. 사진보여줄게
B. _____

- ① 600 ② 700 ③ 800 ④ 900

Q6. 다음 중 신조어인 것은?

- ① 월루 ② 화루 ③ 수루 ④ 목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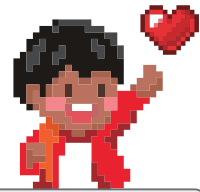
3개 이상 맞췄다면 MZ세대와 가까워질수 있다!

- A1.** ① 핑프: 핑거 프린스/프린세스의 줄임말.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지 않고 묻는 사람
- A2.** ③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겠다
* 점메추: 점심메뉴추천, 주블: 주소불러, 득템력: 희소한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능력
- A3.** ① ↔ C / ② ↔ D / ③ ↔ A / ④ ↔ B
- A4.** ④ 이모: ‘이모에게 말킨다+오마카세’ 신조어 노포나 가맥집에서 안주 일체를 말기는 것을 의미
- A5.** ② 700: 귀여워의 초성인 ㄱㅇㅇ을 표현한 숫자
- A6.** ① 월루: 월급 루팡의 줄임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타가는 사람을 뜻함. 최근에는 일부러 하는 행동을 의미.

TODAY 20,223 | TOTAL 1,658,244

🔊 임창정 - 소주한잔 🎵 📺 📖 🔍 LIST

2000년대 레트로 감성의 부활



올해도 레트로 열풍이 대단하다. 그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Z세대에게는 레트로 감성이 신선하게 다가올 텐데 새롭게 부활한 그 시절 감성. X, Y세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MZ세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그 시절을 알아보자.

부산상공회의Show

일촌

★ 일촌 파도타기



Cyworld가 다시 각광받는 이유 그때 그 시절 추억

2000년대 최대 사용자 수 3,200만 명의 '미니홈피 신드롬'을 일으켰던 싸이월드(Cyworld)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 구글과 애플의 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식 부활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1월부터 로그인 후 과거 사진첩에 있던 사진 3장을 무작위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오픈하자 한 시간 만에 495만 명이 접속했다고 한다. 싸이월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1세대 대표 SNS로써 싸이월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많은 사람의 추억이 숨 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싸이월드는 이용자 간 일촌이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개인의 가상공간인 '미니홈피'를 전용 가상화폐인 도토리를 이용해 전용 스킨과 미니미, 배경 음악들로 꾸미고 일촌들과 소통한다. 이렇듯 싸이월드에서 제공한 개인의 모습과 공간을 꾸미고 소통하는 방식은 최근 대세 트렌드로 떠오른 메타버스의 1세대 플랫폼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싸이월드가 왜?

싸이월드를 주로 사용했던 연령층은 2000~2010년대 10대~30대로 현재 MZ세대들이다. 문화 전파력이 큰 MZ세대들이 유튜브를 통해 과거 영상들을 접하면서 10대, 20대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것이다. 이에 MZ세대들은 복고(레트로)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NEW+레트로)로 변화 시켜 어떤 계층에는 향수를, 어떤 계층에는 새로움을 전달하게 되었다. 뉴트로 문화에 힘입어 밀레니엄 세대의 10대, 20대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싸이월드는 Z세대들이 보기에는 레트로하면서 힙한 서비스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MBC의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인기 있었던 추억의 배경음악을 부른 가수들과 함께한 '도토리 페스티벌'을 방송하면서 대중들을 과거의 향수에 젖어 들게 하였다. 그 당시 특유의 감성으로 싸이월드에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명언 등을 올리는 '허세' 글 문화는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요소이며, 여러 매체에서 밈(meme)으로 소비되고 있다.

향후 싸이월드는 메타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들을 NFT로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한다.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싸이월드의 앞으로가 주목된다.



씩어도 준치! 뉴트로

뉴트로 문화를 좋아하는 MZ세대들은 올드카에도 관심을 보인다. 관심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의 1세대 그랜저로 별칭은 '각 그랜저'이다. 자동차의 앞뒤가 각 진 디자인이라 '각 그랜저'로 불리는데 세차를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 '샤인프릭'이 올린 각그랜저 세차 영상은 조회 수가 195만이 넘는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누리꾼들은 '지금 그랜저 줘도 각 그랜저 타고 싶다', '뉴트로 감성에 취했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차박 캠핑족이 늘면서 1991년~2003년까지 생산되었던 쉼터의 인기도 늘었다. 쉼터는 비교적 부품을 수급하기 쉬워 중고차를 복원

하기도 쉽다고 한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배우 안보현이 쉼터를 타고 캠핑하는 장면이 방영된 후 한때 중고 쉼터가 2,0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최근 트렌드의 핵심은 희소성이다. MZ 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상품보다 희소한 상품을 가지려는 욕구가 더 강해 보인다. 오래된 제품이라 부족한 편의 기능들도 개성으로 여기고 여기에 현재의 새로움을 더해 뉴트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앞으로도 뉴트로의 꾸준하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

My Room

난... 그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루다...
맘이 아프다...
소리 치며... 울 수 있다...
좋은 거야...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휴대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REMEMBER ME

일촌평

일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확인

부산 경제 재도약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이끌어주십시오~~(지역기업인 이상의)

요즘 뉴트로가 유행한다던데 재밌는 글 고맙습니다. 부산상공회의Show(열독자 김상공)

Ceo를 위한 스토리북 부산상공회의Show 흥 해라~~(간부 홍길동)

홈

프로필

다이어리

주크박스

사진첩

게시판

동영상

방명록

물가 상승의 기억 소환과 새로운 도전

글_ 김홍배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급등하는 물가

태평양 저편 미국에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1년 동월보다 7.5% 급등하여 1982년 이후 40년 만의 월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요 요인은 에너지 가격과 음식료품 가격 상승이었지만, 공급망 애로로 인한 반부품, 원자재 등에서도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물가 상승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최대 고용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금리를 연방준비위원회(연준)는 2% ~ 2.2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연준은 목표 금리를 정하는데, 현재 연준의 목표금리가 0.25%이니 향후 1.75%포인트~2%포인트를 더 올려야 되는 셈이다. 이러한 금리 인상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2020년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연준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2023년 혹은 2024년에 가서야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연준 의장 파월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금리 방향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이니 당연히 국내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현재 1.25%)도 미국보다 다소 높게 금리를 같이 올려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도 그리고 가계도 힘들어진다. 더욱이 부산지역 기업들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2020년 37.7%로 증가하여 10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한계상황에 있다.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겨낼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지혜를 기대한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둘째, 자산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원유, 원자재 외에는 없다. 따라서 그간 원자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기업들은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다시 악화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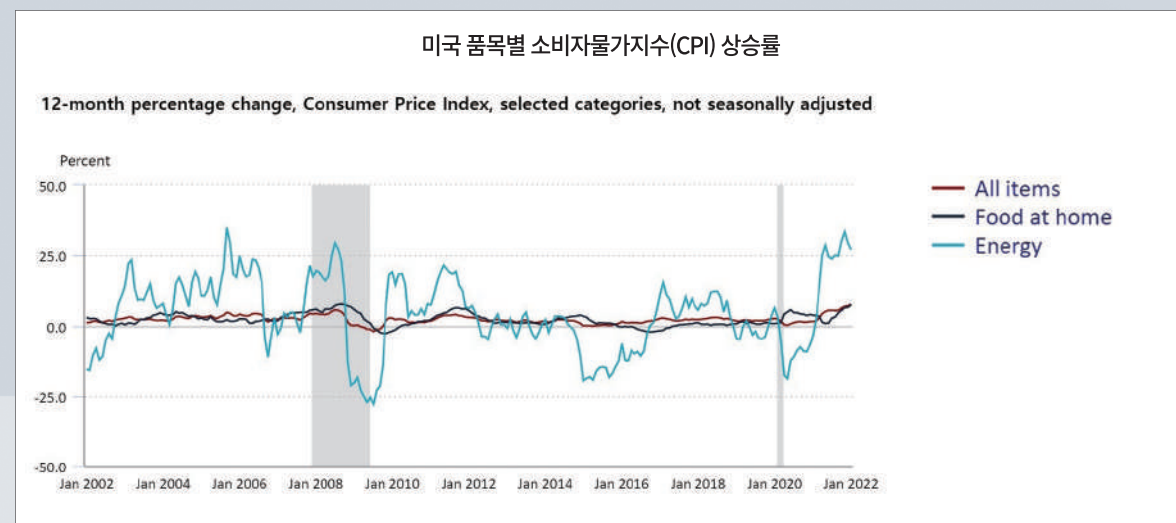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온다면 그 혜택도 잠깐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금리 상승으로 인한 최대 손실액을 초래한 자산은 무엇일까? 주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자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채권에 가장 많은 비중이 배분되어 있다. 채권 이라니 나와 무슨 상관이라 하겠지만 우리의 노후연금 이라 하면 바로 느낌이 온다. 금리와 채권은 역의 관계이다. 작년 12월 말 이후에 우리나라 국채 10년 금리는 0.65% 포인트 상승하였다. 간단히 7억여 원의 연금가입자의 손실액을 계산해보면 7억*듀레이션(10년으로 가정)*0.65%=4,550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운용성과가 우수한 국민연금의 운용역들이 이 손해를 다양한 헤징(스왑, 채권선물) 방법을 통해 잘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주식은 어떠한가. 금리상승의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국 S&P 주가지수와 국내 KOSPI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이유는 물가(금리) 상승을 이겨낸 수준의 기업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금 가격은 2월 둘째 주 들어서야 살짝 머리를 올리고 있을 뿐인데 투자 세계에서 방향성을 단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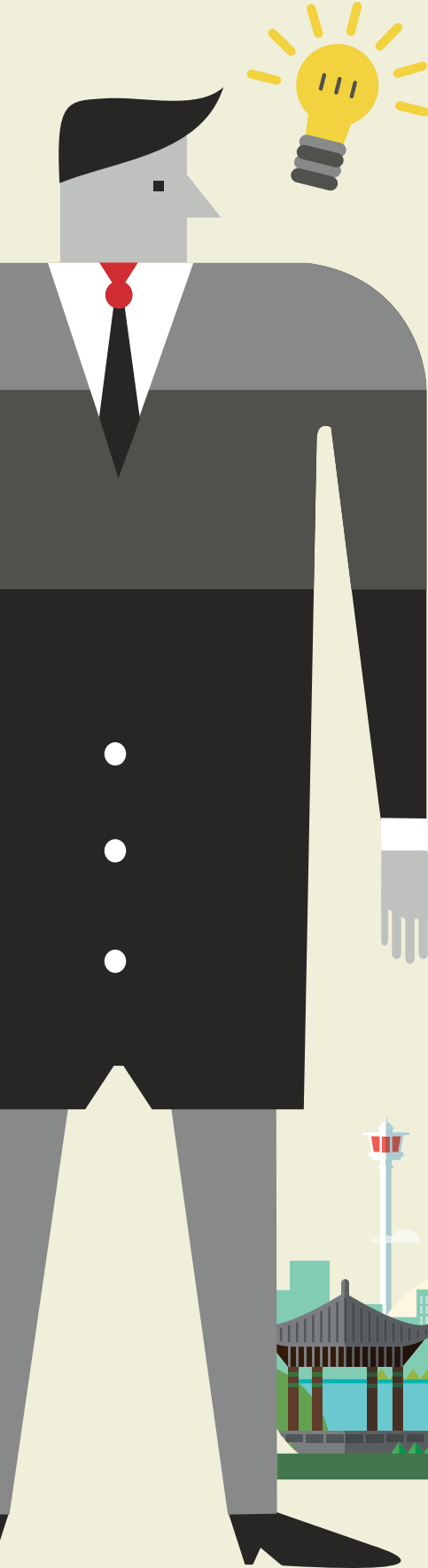
시장참가자의 다양한 견해, 그러나 위험관리가 중요

2020년 바이러스로 모두 힘들어할 때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일제 상승하였는데, 2022년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하락하지 않는 안전자산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너무 시장의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다. 오미كرون 바이러스를 끝으로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신흥국과 저개발국의 원자재 부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며, 호혜적 협약으로 원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현재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그 속도를 낮추고 기업의 실적과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이 경우 완만한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기업의 실적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다시 불을 붙일 것이다. 시장 참가자 중에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섞여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귀를 열어 준비하는 리스크 관리는 경영자의 최고 덕목이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1970년대 후반 경험한 50대 이상의 경영자들은 어린 시절 기억을 소환해야 할 것이다. 태생부터 고물가를 경험하지 못한 40대 이하의 경영자들은 역사에서 대응 방안을 배워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과하게 조심하는 것이 지나침이 될 수 없다. 40년 만에 공급 측면에서 찾아온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위험에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지혜로운 파이팅을 기대한다. 🚀





부산상공회의소가 드리는 최신 경영·경제 정보

1 부산상공회의소에서 RCEP 발급 받으세요!
 부산상공회의소는 2월 3일부터 지역 기업을 위한 기관발급 방식의 RCEP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¹⁾ RCEP은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메가 FTA로 전 세계 인구 30%, GDP 29%, 수출입 29%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의 첫 FTA라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오는 2월부터 RCEP이 발효됨에 따라, 먼저 협정을 발효(22.1.1)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0개국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직 발효하지 않은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에 대해서는 각각 그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RCEP을 통해 역내국의 원산지 재료를 모두 당사국 재료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원재료를 활용한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확인 후,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에서는 수출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RCEP 관련 애로에 대한 전문 관세사 상담 지원 등 현장 중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 슬로플레이션 대응, 3가지 전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슬로플레이션' (Slowflation) 공포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덮치고 있다. 경제 석학들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 둔화와 맞물리는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슬로플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Oded Kenigsberg 교수는 고전적인 가격 인상 전술 대신 새로운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전략 1: 제품, 양, 품질을 조정하라
 먼저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거나 (bundling) 분리하는(unbundling)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가격보다 수량에 대한 고객 민감도가 낮다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상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품질 수용 정도에 따라 특정 기능을 제거하거나 추가하여 품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략 2: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시켜라
 인플레이션은 기업을 위협하는 동시에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인플레이션은 브랜드 이미지를 수정할 기회를 준다. 제품·서비스의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략 3: 가격 모형을 다양화하라
 많은 기업이 구독 경제와 서비스형 플랫폼의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가격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이 가격 모형을 조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인포

3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준비하세요!
 1월 28일부터 기업이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정부가 차량의 수요자인 기업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본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과 의무구매 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렌터카사업자는 신차구매의 22%,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6%, ▲화물 운송사업자는 20%이다. 미 이행 시 벌칙은 없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무인 만큼 가급적 준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제도도 개편된다. 전체 보조금 예산은 예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원대상이 7.5만 대에서 16.5만 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1대당 지원 수준은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차량당 최대 지원액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 차량 가격 기준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

2022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정부(국고) 보조금 지원	최대 700만원
보조금 100% 지급	최대 5,5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50% 지급	최대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미지급	8,500만원 이상 차량

*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대선공약 이행! 부산의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3월 대선 여·야 부산지역 주요공약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알아보자.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적극지원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연계 교통망 확충
에타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성공 기반 마련
2030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해운산업 메카·수소경제 허브로 육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

글로벌 블록체인 특화도시, 디지털 융복합 허브로 조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및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의 중심지로 육성

55보급창 도심 군사시설 이전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광역교통망 확충 및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으로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

그 외 공약들

더불어민주당

-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 육성
- 숲길·청년창업문화공간·청년기본주택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부산지역 내 의료격차해소 및 공공의료 벨트 완성

국민의힘

- CCUS [탄소포집저장기술] 플랫폼 선제적 구축
-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양금융·해운기업 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해양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적극 추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가이드라인 공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 부문은 탄소 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이고, 전환부부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제시한다. 녹색 부문에서는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등의 분야에서 64개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비탄산염 등 탄소 중립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조 활동을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방법으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물질 등을 제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을 포함한다.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전환하고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원자력의 경우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수송 분야

에서는 전기·수소 등을 사용하는 무공해 차량·철도·선박·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운영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제시했다. 도시·건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전환 부문에서는 5개 경제활동이 포함되었다.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등이다. 전환 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경제활동은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하고, 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녹색 분류체계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활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분야별 주요 녹색경제활동		※ 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분야	설명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 전기화 및 전기활용기술,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혼합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 등 	
발전·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전기 및 열,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공해 차량·철도·선박·항공기 제조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및 육상·철도 운송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도시·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 건축물 건설 및 리모델링 건축물 관련 온실 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등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 수립

정부가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는 생산·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순환 경제는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사용주기를 연장하는 경제모델이다. 순환 경제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은 생산·유통·폐기 등 순환 단계별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원료 및 제품 생산의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종이, 유리, 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부담금과 생산자책임 재활용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2030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유통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고, 유통사업자의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의무화도 검토한다.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일정

~ 2022년	제과점, 종합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 2025년	도·소매업(33㎡ 초과), 음식점·주점업
~ 2030년	전 업종

폐기 단계에서는 폐자원의 재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부품, 복사기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하고 있는 재제조(Remufacturing)를 올해부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 주요내용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순환 경제 이행계획	개정 내용
자원 순환성 강화 (생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원료 이용 확대 -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확대: (기존)종이·유리·철 → (개정)플라스틱 등 추가 - 재생원료 사용시 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부담금 감면 바이오 플라스틱 활성화(환경표지 인증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 추진 등)
친환경 소비 촉진 (유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2030) 및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 금지 확대 유통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및 포장용기 재사용 활성화
폐자원 재활용 확대 (폐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 연·원료화 재제조 허용품목 네거티브로 전환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01 세븐 테크
김미경, 김상균, 김세규, 이경전, 이한주, 정지훈, 최재봉, 한재권 |
웅진지식하우스 | 18,000원

대한민국 자기계발 멘토이자 디지털 리부트의 산증인인 김미경 대표가 이 급박한 테크 혁명의 전체 지도를 그리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IT 역사의 최고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를 필두로, 《포노 사피엔스》로 스마트폰 신인류를 해명한 최재봉 교수, 메타버스 최고 권위자 김상균 교수, 국내 로봇 공학의 일인자 한재권 교수, AI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미래로 안내하는 이경전 교수, 비트코인 너머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설파하는 김승주 교수, 현실로 다가온 VR/AR의 힘을 보여주는 김세규 대표, 테크 혁명의 기초인 클라우드 컴퓨팅 전도사 이한주 대표 등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과 함께 세븐 테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세븐 테크》는 독자의 눈높이에서 굵직한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진짜 핵심이 되는 통찰들만을 골라 담으며, 또한 이 7가지 테크 혁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바꿀지 생생하게 그릴 수 있게 해준다.



02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홍춘욱 | 스마트북스 | 17,500원

“한국 주식은 투자하기 너무 힘들니,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게 어때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이메일과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처럼 받은 수많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살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진행되기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Stage3]에는 투자성향에 맞춘 다양한 자산배분 전략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인에 적합한 자산배분 전략의 기초를 설명하는 부분이 압권이다.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 국민연금·은행·증권사 등 30년 동안 경제전문가로 일한 저자의 관록이 돋보이는 책으로, 종잡돈을 모으고 있는 2030세대뿐만 아니라 자산배분이 필요한 4050세대 등 모든 한국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투자 필독서이다.



03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
조원경 | 페이지2북스 |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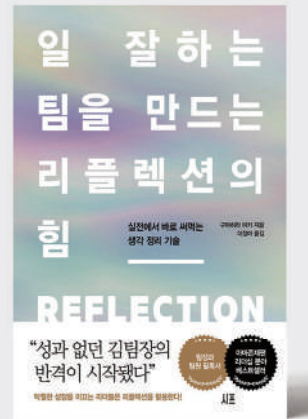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요즘, 이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뉴스만 켜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이 책은 미래를 바꿀 4가지 혁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데이터 과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머리로는 이해해도 피부로는 와닿지 않는 기술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관점이 필요하다.

책에는 기술을 선도하는 유명 해외 기업의 사례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중인 여러 국내 기업 사례도 대거 등장한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과 분석도 놓치지 않았으며, 왜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혁신기술을 움켜쥐려 하는지, 쇠락의 길을 걷던 기업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이용해 부활하게 되었는지 등이 담겨있다.

04 잘하는 팀을 만드는 리플렉션의 힘
구마히라 미카 | 시프 | 19,800원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가 말하는 최고의 실전 솔루션을 담은 책으로, 리더십 및 조직관리 분야의 권위자 구마히라 미카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운영체제도 뒤쳐지지 않게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는 방법, 즉 ‘리플렉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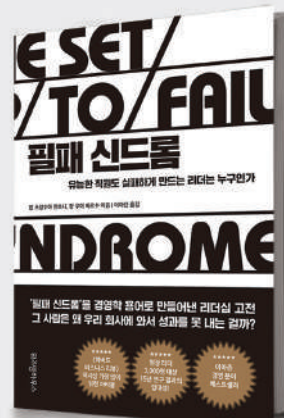
리플렉션은 리더로서 원칙을 세우고 의욕을 높이고 싶을 때, 조직의 관리자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 팀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팀원들에게 주체성을 길러주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 때, 업무의 방향을 통일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해야 할 때, 조직의 비전을 찾을 때 등등 여러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



05 필패 신드롬
장 프랑수아 만초니, 장 루이 바르수 | 위즈덤하우스 | 19,000원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저자들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대해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포착한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부하직원이라도 상사로 부터 일을 잘 못한다는 의심 받는 순간 실제로 무능해진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를 ‘필패 신드롬’이라 명명했다. 필패 신드롬이 생기는 것은 상사가 자신의 주관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인식하려 하는 확증편향 때문이다. 즉, 상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인지적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편견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유능한 직원조차 무능한 직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 책은 직장 상사를 포함한 모든 리더가 ‘필패 신드롬’에 빠져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통해 더 나은 성과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준다.



선보패밀리 청소년 그루터기 재단에 기부금 전달

선보패밀리는 1월 25일(화) 청소년 그루터기 재단에 성금 12,986,960원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선보공업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천사 선보인 제도를 통해서 모인 금액이며, 이에 최금식 회장이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이루어졌다.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선대위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1월 26일(수)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를 초청하여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상의는 간담회를 통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14대 핵심 현안을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골든블루-한국청년회의소 사회공헌 협약식

골든블루와 한국청년회의소는 2월 6일(일) 그랜드 워커히 서울호텔에서 사회공헌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골든블루와 한국청년회의소는 2015년부터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왔으며, 올해 8번째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사회 곳곳에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정 부산공동모금회에 3억 2천만 원 성금·성품 전달

세정(회장 박순호)은 2월 7일(월) 부산시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성품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다. 이번에 세정그룹이 전달한 성금 2천만 원과 3억 원 상당의 의류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주)파나시아, 부산 해운대 탄소중립 숲 조성에 2억 기부

(주)파나시아(대표 이수태)는 2월 3일(수) 시청 7층 의전실에서 해운대수목원 탄소 중립 숲 조성을 위한 기부금 2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파나시아 탄소 중립 숲은 면적 5,500㎡ 규모로 조성되며 느티나무, 칠엽수, 가시나무 등 20종, 450여 그루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간담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2월 6일(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부산상의는 20대 대선 지역경제계 제언집을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균형발전 1호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NK부산은행 메타버스-블록체인 결합 금융 서비스 제휴 체결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2월 9일(수) 소니뮤직퍼블리싱, (주)미디움과 디지털 자산 금융사업 진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BNK부산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유명 아티스트의 음악을 디지털 자산으로 공급하고, 블록체인 메인넷, 음악 NFT 토큰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청년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에 첫 번째 주자로 참여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2월 9일(수)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청년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에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청년 창업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며 "지역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상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주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소주 600만병 생산

대선주조는 2월 9일(수)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서포터즈와 2030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선주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주병 라벨 후면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서포터즈와 함께 라는 문구를 담은 대선 소주 600만병을 제작해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박수관 베트남 명예총영사 베트남 외교장관과 회담

박수관(와이씨텍 회장) 베트남 명예총영사는 베트남 정부와 2월 11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수관 명예총영사는 부산-호치민, 부산-하노이 직항노선을 개방해주시기를 요청하고,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전면 개방을 베트남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에어부산, 노기태 강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2월 16일(수) 부산시 강서구청에서 항공기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개정에 기여한 노기태 강서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가 참여하여 지역 항공사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강서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부산광역시 '융합얼라이언스 발족'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박차

부산광역시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등 20여 개 기관은 2월 17일(목) 융합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지역 산업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융합얼라이언스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대비하여 디지털전환 포럼 개최, 디지털전환 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주) 보호 아동 위한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지원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이 2월 11일(금) 지역 아동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보호 아동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후원하였다. 이번 후원은 공동생활 가정에서 거주하는 보호 아동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가진단키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전달 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2021년 부산항 발전 기여 선사 감사패 수여식 개최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2월 11일(금) 2021년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 2,270만 TEU 달성과 친환경 그린항만 구축에 기여한 6개 선사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 했다. 선정된 선사는 ONE, MSC, MAERSK, CMA 등 외국계 4개사와 HMM,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2개 사다.



(주)경성리츠, 신학기지원사업 '함께 걷는 등갯길' 2,000만 원 지원

(주)경성리츠(대표 채창일)는 2월 22일(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를 통해 신학기 지원 사업 '함께 걷는 등갯길'을 위해 2,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함께 걷는 등갯길'은 매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신학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CEO로 스테판 드블레즈 대표이사 부임

르노삼성자동차는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그룹 선형 프로젝트 및 크로스 카 라인 프로그램 디렉터가 새 대표이사로 3월 1일 부임한다고 밝혔다. 드블레즈 대표는 르노 남미 시장 차량 개발 총괄 엔지니어, C(준중형)·D(중형) 세그먼트 신차 개발 프로그램 디렉터 등을 역임하였다.



즐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 안내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초 세무/회계 시리즈 1 × 인사노무 시리즈 +

← → 재무제표 이해와 작성&재무비율 분석

일 시 2022. 4. 7.(목) 09:30 ~ 17:30

장 소 부산상의 국제회의장

대 상 회계 기본지식 및 재무제표 작성·분석 능력이 필요한 담당자

수강료 154,000원(회원기업 50%할인 77,000원)

내 용

회계의 기초개념: 회계와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재무제표의 요소와 표시방법,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이해

☑ 재무제표 분석: 유동성·안전성·활동성·수익성·성장성 분석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회계·세무 전문가 양성을
도려드립니다.



기초 세무/회계 시리즈 2 × 인사노무 시리즈 +

← → 기초 세무실무의 이해

일 시 2022. 4. 8.(금) 09:30 ~ 17:30

장 소 부산상의 국제회의장

대 상 경리, 회계, 재무, 기획 실무자

수강료 154,000원(회원기업 50%할인 77,000원)

내 용

소득세 및 원천징수 실무

소득세 일반, 원천징수 일반,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 실무: 법인세 납세의무자, 세무조정의 이해

☑ 부가가치세 실무: 사업자와 사업장(등록,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고납부(과세기간, 신고기간, 예정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 수정신고),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재화와 용역의 공급, 공급 특례,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영세율과 면세



기업의 올바른 인사·노무 업무를 위한
필수 과정을 함께 해보세요.

인사노무 시리즈 1 × 기초 세무/회계 시리즈

← → 근로시간, 휴일/휴가관리

일 시 2022. 4. 15.(금) 09:00 ~ 13:00

장 소 부산상의 국제회의장

대 상 인사, 노무, 총무 관리 담당자

수강료 88,000원(회원기업 50% 할인 44,000원)

내 용

☑ 근로시간 실무: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구분과 관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개념 구분과 관리,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판정예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지침

☑ 휴일실무: 휴일의 일반법리, 주휴일 등 법정휴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 휴가실무: 휴가의 일반법리,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육아휴직, 연차사용촉진제도

인사노무 시리즈 2 × 기초 세무/회계 시리즈

←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일 시 2022. 4. 15.(금) 14:00~18:00

장 소 부산상의 국제회의장

대 상 인사, 노무, 총무 관리 담당자

수강료 88,000원(회원기업 50% 할인 44,000원)

내 용

☑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근로계약의 의미, 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체결과 위약예정 금지, 근로계약과 서면명시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의 관계, 수습기간의 법정 의미와 관리, 수습기간의 종료와 근로계약 관계

☑ 취업규칙 작성실무: 법령 이해, 적용범위, 취업규칙 작성 예시, 제·개정 신고

부산상공회의소
Story for 부산CEO
Show

구독자 의견청취 이벤트

「부산상공회의소Show」를 구독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의견이 「부산상공회의소Show」 제작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의견을 보내주신
고마운 독자 여러분께 소정의 커피 쿠폰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대상 「부산상공회의소Show」 구독자

조사기간 2022. 3. 2 ~ 2022. 3. 25.

참여방법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하여
메일(kwkim@korcham.net)로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참여

당첨자 발표 3월 말 개별 통보 예정

제안 내용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보완해야할 점,
재미있게 읽은 내용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지원 가능

※ 개인정보는 추첨 및 상품 증정 용도로만 사용되며 사용 후 폐기됩니다.



2022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재직자 직무교육 안내

국립부경대학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기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은
부경대학교와 함께

건축물 보수계획 실무		조경시공 및 관리 실무	
교육기간	3월 4일 개강 / 4월 28일 개강 예정 09:00~17:40(1일 8시간)	교육기간	3월 24일 개강 09:00~17:40(1일 8시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 기술관리 분류 • 공사비용 회계처리 계획 • 내·외부 건축물 관리 계획 • 설비,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 계획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공의 이해 및 하자검수 • 수목관리 및 전정과 이식 • 병충해발생 시기와 원인, 방제법 •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의 수목병
건축 도장관리 실무		설비 도면해독법 실무	
교육기간	4월 12일 개강 / 6월 14일 개강 예정 09:00~17:40(1일 8시간)	교육기간	5월 개강 예정 09:00~17:40(1일 8시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공사 개요 및 이해 • 수성페인트, 에폭시, 우레탄 공사내용 • 하자보수 범위 및 책임기간 • 하자 연차별 사례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 급탕설비 및 오배수 통기설비 • 열원 및 공기조화설비 • 급·배수설비 설계도서 기호확인/읽기 • 급·배수설비 평면도면 확인
스프레드시트(엑셀) 활용 실무 초급		스프레드시트(엑셀) 활용 실무 중급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09:00~17:40(1일 8시간)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09:00~17:40(1일 8시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형식 및 입력/자동채우기/시트관리 • 계산표 작성 / 틀고정 / 인쇄 • 수식 및 기초함수 / 상대·절대·혼합참조 • 실용문서 만들기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 조건부 서식 / 텍스트, 날짜 함수 • VLOOKUP, CHOOSE, 논리, 중첩 함수 • 필터 및 차트만들기 • 실용문서 만들기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적금

월드엑스포란?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1천원 이상 3백만원 이하
(천 원 단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기간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 단위)

기본이율

2022.02.14 현재, 세전 기준

가입기간	적용이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 1.8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연 1.90%
30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연 2.00%

우대이율

최대 1.90%p (우대이율 상세요건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예금자보호법 & 문외]

-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 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 하시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상금 5천만원
부산시민 UCC 공모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엄지척 오디션

부산시민 여러분의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원동력입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 함께 도전합시다!

공모 주제

부산시민 여러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동참합시다!

참여 자격

부산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및 성인 누구나 (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

접수기간

2022. 2. 25.(금) ~ 3. 31.(목)

접수 방법

메일 접수(2030ucc@korcham.net)

- 참가신청서 및 영상파일
- 접수된 영상은 문제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업로드

작품 종류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뉴스, 챌린지, 댄스, 플래시몹, V-Log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할 수 있는 순수창작 동영상

유의사항

- ① 타 공모전 수상작품 및 타인의 저작물 도용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해당 사실 밝혀질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을 환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② 응모작 심사 후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콘텐트가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 ③ 제출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부산상공회의소에 귀속되며,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④ 응모작품의 초상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응모자에게 귀속됨

출품 가이드

3분 이내의 AVI, WMV, MP4 파일(온라인 게시용)
(※별도의 메이킹 영상(2분 이내) 추가제출 가능)
FHD사이즈(1,920×1,080 픽셀 이상)

시상내역(총상금 5,000만원)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시상금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00만원
수상인원	1명	2명	5명	6명

※ 응모자 전원에게는 개인·단체 구분 없이 건당 1개의 참가기념품 증정

심사 방법

- 1차: 온라인 투표 70% + 전문가 심사 30%
- 온라인 투표: 4월 7일 18시에 각 영상에 달린 '좋아요'수 집계
 - 전문가 심사: 주제적합성, 콘텐트완성도, 흥미성, 활용성

2차: 방송 오디션 100%(시상식과 함께 진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참조

지하150m 견운모 암반수

“금천 게르마늄 헬시언샘물”

Nature Mineral Water

1988년 4월 국내 최초 발견 국산 게르마늄 광천수
일본 건강 스포츠 연맹(JFHS)최초 추천 생수



주문전화 **1522-8811** www.healthyonwater.kr